

알짜 자회사의 힘! 지주사 실적 희비 갈랐다

핵심 상장사 호조로 실적 성장 보템
비상장사 적자에 성장 둔화 우려도

알짜 상장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가 덩달아 웃음꽃이 피었다. GS, 한화, 롯데 지주, 삼양홀딩스, 한솔홀딩스 등은 비상장 자회사의 부진에도 핵심 상장사의 업황 호조 등으로 실적 성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LG와 CJ는 비상장 자회사의 부진과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발목을 잡혔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해소해야 할 처지다.

흔히 지주회사는 핵심 가치로 자회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아들(자회사)이 돈을 많이 벌면 유입되는 현금도 늘어나고, 향후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거나 배당하는데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분법 평가에 의존하는 지주사들은 '천수답' 경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



르면 LG의 3분기 영업이익은 5273억1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8.2% 감소한 수치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추정치는 5800억원 규모였다.

3분기 매출액은 2조9672억9400만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0.1%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4605억8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8% 감소했다. LG CNS 부진이 한 몫했다. 매출액은 7605억원(이하 전년 동기 대비 -0.3%), 영업이익은 285억원(-52.5%)으로 부진했다. 서버윈도 매출액 1조7100억원(-1.7%), 영업이익은 554억원(-22.9%)에 머물렀다.

CJ도 CJ푸드빌 등이 발목을 잡았다. 매출은 7조6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4064억원으로 -5.9%나 줄었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70억원(-96.7%)로 폭 떨어졌다.

중속법인 가운데 상장사(CJ제일제당, CJ CGV, CJ ENM)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반면 푸드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전 분기 대비 2.3% 감소한 227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74억원으로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GS, 한화, 롯데지주는 4분기 마무리만 잘 하면 웃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한화는 올 3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11조6234억원과 영업이익 59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1조6955억원)보다 0.6%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년 전(3883억원)에 비해 51.9%나 증가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1조3916억원과 영업이익 9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1486억원·805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21.2%와 13.4% 늘어난 것이다. 3분기에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자체 사업이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인 데다 한화건설 등 자회사들도 선전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력 해외 프로젝트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이 최근 정상화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체 사업 가운데서는 방산 부문에서 건조한 매출 증가가 이어졌고, 무역 부문에서도 유화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S그룹 지주회사인 (주)GS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91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2% 늘었다. 매출

액은 4조8096억원으로 13.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512억원으로 35.7% 증가했다. GS에 따르면 계열사 중 GS칼텍스는 3분기 파라자일렌(PX) 마진 상승으로 석유화학 부문 이익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와 전 분기 대비 성장했다. 발전 자회사들과 유통 자회사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돼 그룹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롯데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2조35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9% 늘었다. 영업이익 608억원으로 시장 추정치 45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유통부문은 매출 1조697억원, 영업이익 178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부문은 매출 5332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냈다. 식품은 매출 4346억원, 영업이익 114억원을 기록했고, 컴퓨터시스템구축부문에서는 매출 2,017억원, 영업이익 7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광고대행 부문에서는 매출 820억원, 영업이익 74억원의 실적을 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18일 오전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강원군 현대아산 화진포아산휴게소에서 동행하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北서 금강산관광 기념행사 4년만에 개최

현대그룹-조선아태평화촉 공동주최
남북간 경험·교류 방안 의견 나눌 듯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1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측 금강산에서 시작된다. 북한에서 금강산관광 기념행사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4년 16주년 행사 이후 4년만이다.

이번 행사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공동주최한다. 이날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수, 축하공연, 만찬에 이어 이튿날 현지 참관 등으로 이어진다.

현대그룹은 지난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9년 고(故) 정몽헌 회장이 해상 경로를 통해 방북해 금강산에서 1주년 행사를 열었다.

행사 전날에는 남측에서도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았으나 2007년까지는 매년 금강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5주년이었던 2003년에는 처음 남북공동행사로 진행했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그해 금강산 행사는 취소됐다. 이후에도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까지 금강산에서 기념식이 열렸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

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중단됐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남측에서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명과 외부 초청인사, 취재진 등 100여명, 북측에서 아태 관계자 등 80여명이 각각 참석한다. 특히 남측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현직 여야 의원 6명이 방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과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행사 기간에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남북간 경험과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달 초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열고 민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 만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인 이번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는 19일 남측으로 입경하면서 방북 소감과 결과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우 기자 yw964@

당신의 봄

이 꽃병에선 모든 꽃말이 '안심'

혹시, 소화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언제나 당신 가까이 둘 수 있는 꽃병소화기 Firevase를 소개합니다

평소에는 꽃병이자 화재 시 던져서 불을 끄는 꽃병소화기 Firevase

늘 곁에 있는 보험처럼 늘 옆에서 당신을 지킬 거예요

삼성화재 페이스북 이벤트 참여 시 추첨을 통하여 꽃병소화기 Firevase를 드립니다
꽃병소화기 Firevase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samsungfire.com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승인 투척용 소화용구 | 일반화재 초기진화용 | 사용 전 제품 속 품질보증서 필독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